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성'으로서의 생활 사이의 투쟁에 대하여

『세이토』 5권 8호, 1915년 9월

김 경 원*

노에[이토 노에 伊藤野枝] 씨

근래에 『세이토』이나 『제3제국』에 발표하신 글을 읽고 출산이나 아동에 대한 노에 씨의 생각과 피임이나 낙태에 대한 의견을 알 수 있어서 저는 반가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요즘에야 가까스로 이런 문제를 이제까지처럼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또한 단순한 사상적인 부인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또 자신의 실생활 그 자체와 직접 교섭하는 문제로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제 자신이 현재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답니다. 저는 지금 여성으로서 자신을 충분히 자각한 자리에서 이들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낮이고 밤이고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적은 글이나 사쓰키[하라다 사쓰키 原田臯月] 씨의 낙태사건을 다룬 창작에 대해 특별한 주의와 흥미를 느꼈고, 또 이런 편지

* 서울대 국문과 강사

를 쓰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노에 씨, 당신이 첫 번째로 임신하신 때가 벌써 2년 전의 일이군요. 그때 저는 당신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뱃속의 아기에 대해서나 어머니가 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을 하시리라 짐작은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에 관해서 당신에게 직접 여쭙어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당신의 표정이나 언뜻 스치는 말 한 마디를 통해 당신이 임신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몹시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당황하는 어떤 지점을 읽어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뜻 나서서 당신에게 이것저것 여쭙어보는 일은 웬지 삼가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속에도 아직 세상의 많은 부인이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타인에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수치나 혐오, 또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건드리지 말자는 소심한 생각이 있어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거리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는 나이는 더 많지만 성적 생활의 경험이나 성적인 성숙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어린애 같기만 한 독신여성인 제게(그 당시는 그랬지요) 당신의 새롭고 귀중한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 싫어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러나 당신의 작품 「동요」를 읽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소 실망과 함께 어떤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3자인 저로서는 그 작품에서 다룬 사건의 배경으로서 당신의 임신 사실을 잇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신에게 생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는 여러 가지를 가능한 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따지고 밝혀서 쓰셨다면, 훨씬 분명하고 진실하며 풍부한 의의를 갖춘 심오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관해서는 어

면 점에서도, 단 한 마디조차 언급하지 않으셨더군요. 왜 그러셨을까요. 역시 수치스러운 생각 때문일까—특히 당신을 비록 한 순간이나마 유혹하여 당신을 그토록 동요시킨 상대방 남자에 대해 차마 참아내기 힘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식해서일까 의식하지 않아서일까, 어쩌면 당사자라는 처지는 실제로는 오히려 이렇게도 자신이 품은 태내의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고나 할까, 아니 의식적으로는 전혀 무관계, 물고섬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일반 부인과 비교한다면 항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자각을 갖춘 당신이기에 더욱 그런 것은 아닐까 등등. 이것이 「동요」를 읽고 평가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품었던 의문입니다. 이 의문 때문에 저는 얼마나 비평의 붓이 무디어지는 것을 느꼈는지요.

노에 씨

저는 그 당시 당신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임신이나 출산, 어머니가 되신 일과 그 결과 당신의 생활이나 사상에 갑작스러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던 것을 제 눈으로 집적 보았지요. 그 중에서도 자제 분의 성장과 함께 당신의 마음속에도 차츰차츰 성장하는 도저히 짚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애정, 남을 위해서는 조금도 용이하게 희생하지 않는 당신이 자식이라면 어떤 희생도, 모순도, 고통도, 번잡함도 거의 느끼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커다란 어머니의 본능적 애정을 오히려 경이의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종족과 직접관계를 가진 여성의 생활, 말을 바꾸면 종족에 대해서 타고난 여성의 사명과 개인으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인의 영적인 생활이나 일, 직업 사이의 모순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라 생각되는 바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처 방관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런 문제는 아직 제 자신의 문제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비판적 사고력도 갖추지 못했던 미숙한 시절에 무조건 받아들였던 사상, 즉 뉘나뉘니 해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금욕적인 동양사상—특히 불교 사상의 잔해가 이미 사상이라기보다도 감정으로서 제 마음 한 구석에 확고하게 달라붙어 있었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 주변의 곳곳에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부인들이 너무도 학대받는 것을 보고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를 느꼈으며,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고 있는 부인에 대한 증오와 모멸에 반항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연애 경험, 더욱 정확히 말하면 제 자신의 연애가 성장 발달한 방식도 한몫 거들어서, 지금 생각하면 이른바 '성'으로서의 부인 생활에 대해 제법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으로서의 남자에 대해 증오와 반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러한 편견과 증오와 반감이 부인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거나 부인 문제를 건전하게 이끌어내는 데 하나의 장애로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해야겠지요.

노에 씨, 당신 같은 정열적이고 다짜고짜 감격 속에 스스로를 던져 넣을 수 있는 부인에게는 제 과거의 연애경험이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적어도 참되지 않은 전만 눈에 떨지도 모르겠지만, 한때의 저에게는 연애라는 것이 이성에 대한 단순하지만 강렬한 호기심으로만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기가 질릴 정도인데, 그 때는 그런 호기심을 위해서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모험이나 어떤 손해, 또는 거짓말이나 때로는 죄악이라고 할 만한 짓도 저지르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성에 대한 애정과 성욕이 아직 나타나기 전(적어도 제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나기 전)의 연애는 일견 정열적인 것으로 보이면서도 거기에는 어떤 깊은 집착이라고 해야 할 것도 동반되지 않았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요구도 독점욕도 질투도 뚜렷하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공동생활의 요구나 아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

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어찌하여 그 당시 제가 가졌던 이런 호기심이 나중에 제 안에서 다시 나타난 애정의 전신이 되는지는 이미 아시겠지요. 이 진리를 처음으로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H[오쿠무라 히로시(奥村博史)]를 가리킨다. 라이초우는 28세였던 1914년부터 연하의 화가인 오쿠무라 히로시와 ‘공동 생활’을 시작하여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 1941년에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오쿠무라 가에 정식으로 입적했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H에 대한 제 사랑은 사랑이 깊어짐에 따라 비로소 공동생활에 대한 요구로서 제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지금의 생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이미 아시고 계시지요. 이리하여 연애라는 것이 저에게 점차 인생의, 아니 저 자신의 엄숙하고 중대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문제를 재차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무시해온 여성으로서, 사랑을 영위하는 자의 처지에서 부인생활의 참된 의의나 가치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필시 물정에 어두운 저를 보고 웃으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걸어온 길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인간으로서 또는 개성을 지닌 자로서 부인을 해방할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부인을 해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아직 손도 못 댄 채 자기 앞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저의 사색 가운데 또 실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암시나 교재를 제공해 주고 제가 고민하는 사상을 끌어내거나 이끌어준 것, 또는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나 참고가 되어준 것은 엘렌 케이의 저서였습니다.

노에 씨

두 사람의 사랑을 공동생활을 시작한 당시와 비교해 보면 겨우 2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제법 성장도 하고 변화도 겪었습니다. 제 안에는 뭐

니뤄니 해도 아직 혼돈이 가시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아직 깨이지 못한 여성이라는 자각을 날마다 뚜렷이 곱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애정 생활은 인간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나의 내면 생활, 나의 고독한 영혼의 요구에 근거한 작업과 투쟁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피하기 어려운 곤란한 문제로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현실적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엘렌 케이는 현대의 서구 부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대한 투쟁은 건강과 질병, 발달과 퇴화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이루는 동등한 두 형식인 소울 라이프와 패밀리 라이프 사이에 놓여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현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일본의 부인들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 내포한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요.

노에 씨,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만큼 많은 딜레마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군요. 그야 남자들의 생활에도 반드시 많은 모순 투쟁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처자 가족을 부양할 생활비를 얻기 위한 노동과 그 사람 자신이 인간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영혼의 생활을 영위할 일 사이의 모순 같은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일이나 연구와 생계를 위한 직업 이외에 한편으로 애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자 하는 부인의 생활과 남자의 생활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제가 언제나 아이를 두려워하고 피하려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저라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무턱대고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나름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그 중 주요한 이유를 꼽아보면, 첫째로, 현재의 자신에 대해 뭉뚱하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교양하고 인간으로서 또 개성 있는 자로서 내적 생활을 구

축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하고 안정된 사색의 시간과 공부 시간, 작업 시간을 갖고 싶고,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힘을 갖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필요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자식에 대한 욕망이나 부모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랑이 빛은 필연적이고 임의적이지 않은, 도리어 우연한 결과라고 해도 아무런 욕망도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만든다는 것은 부모가 될 첫 번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아이에 대해서도 죄악일 뿐 아니라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나날의 빈곤한 생활은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데 부적당한 환경으로서 도저히 부모의 책임을 충분히 완수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온갖 곤란과 싸우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당신을 지켜보면서, 내게는 지금 아이가 생기면 큰일나겠다, 당신은 건강하고 정력이 넘치며 어떤 종류의 대범함과 방입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제나 생각하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곧 인생에 대한 비겁하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을 모르는 문외한의 공상적인 ‘객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정력은 본래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어지간히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일에 자신의 모든 혼을 동시에 쏟아 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쪽의 생활을 심화하고 확대하려고 하면, 자연히 다른 한쪽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더욱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적극적이라든가 소극적이라든가 하는 판단만으로 ‘좋다’, ‘나쁘다’, ‘옳다’, ‘옳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은 무엇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무엇에 대해서 소극적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억제하며 무엇에 제한을 두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나 곤란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요컨대 일면의 진리일 뿐으로, 가령 그것이 우리 생활을 고양시키거나 우리의 생명력을 증대시켜 주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충분한 고려를 거쳐 선택하지 않고, 고통과 곤란의 와중에 뛰어드는 일부 용감한 사람들을 무조건 칭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인간의 지력, 이성이라는 것의 필요와 그 가치를 꼭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는 것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피임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도 어떤 의미로는 피임을 시인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그러나 저는 당신이 쓰신 글만 보아서는 그러한 시인의 이유로서 알맹이 있는 어떤 것도 거의 읽어낼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당신이 낙태를 단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치부하고 자연을 모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 “어디까지나 용서하기 어려운 죄악”이라고 단정하셨던 바로부터 짐작해보면, 당연하게도 피임 역시 당신에게는 오십보 백보 죄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태란 인공적으로 생명의 가능성을 빼앗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피임은 아직 괜찮지만 낙태는 나쁘다, 또는 낙태는 아직 괜찮지만 태아살해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감정론이나 상식론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도 피임을 결코 죄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일이 그 사람이나 자신의 종족, 또는 양쪽 모두의 발전과 향상에 저해될 경우, 예컨대 인구 과다 때문에 생활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결과 국민의 피폐, 퇴화가 초래될 때, 일반적으로 산아를 제한하는 경우), 그리고 유해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행해지는 피임이라면 오히려 지력이 진보한

문명인의 특권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때로는 피임을 실행했어요. 그런데도 무슨 일일까요. 피임을 해보고 제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과 내적인 실감은 머릿속 논리와는 전혀 양립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죄악감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직면하여 순간적으로 느끼는 격심한 추악한 느낌이었어요. 노에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상이한 인격이 결합하고 융화하여 자신의 존재를 망각할 정도의 영혼과 육체의 희열, 절대적 경지 앞에 이를 때, 동시에 그 결과로 나타나날지 어떨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미래의 아이나 종족에 미치는 영향에 자신의 순간적인 모든 의식을 할애하고 나아가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야말로 저에게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모멸하고 두 사람의 사랑을 모욕하는 낙태보다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워하고 혐오해야 할 추악하고 괴로운 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도 늘 인간의 모순을 느낌과 동시에 사쓰키 씨가 “나는 인간의 의식이 성욕의 결과에까지 작용할 수 없다는 불완전함을 원망하면서 그때가 오지 않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고 한 데 동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에 씨

저도 마침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통 아기를 가졌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를 더욱 새삼스레 분명하게 느꼈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당신이나 사쓰키 씨가 (사쓰키 씨의 창작은 그녀가 임신했을 때 꿈에서 암시를 받아서 쓴 것이라고 하더이다) 임신 기간에 한번은 사로잡힌 것 같은 낙태의 공상에 저도 제일 먼저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초기의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낙태라는 생각으로 이끌었던 불안이나 공포의 원인에 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나 사쓰키 씨의 창작이나 적어도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바로 만 판단해 보자면, 그 원인은 빈곤 즉 생활난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지금 “만약 내가 그때 결코 살기 딱한 처지가 아니었던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쓰키 씨의 창작 속에 나오는 여성은 빈번하게 자신은 부모 될 자격이 없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왜 그런 자격이 없는지, 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는지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역시 빈곤이라는 것 이외에 별달리 이유라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알맹이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과연 두 분은 정말로 ‘성’으로서 부인의 생활—종족에 대한 부인의 천직—과 ‘개인’으로서 부인 자신의 생활 사이의 모순·충돌에는 빈곤에 대해서만큼 괴로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개인으로서의 자각도 없고 자기 자신의 생활이라 할 만한 것을 조금도 지니지 못한 구식의 평범한 일본 부인들이라면 모르되, 또 아무런 교양도 없이 끼니를 때우는 일로 살아가는 데 급급한 것이 전부인 이른바 하층사회의 노동 부인이라면 모르되, 두 분과 같은 부인들에게서 이런 종류의 투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저로서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느껴질 뿐입니다. 생각전대 빈곤에서 오는 불안, 고통, 공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그 그들에 숨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분에게는 제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개인’과 ‘성’ 사이의 투쟁 따위는 벌써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까닭에, 지금은 무언가 한 단계 높은 생활 속에서 양자의 조화통일을 실제로 체득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저라고 해서 빈궁함에 무심할 수 있는 처지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직업이라 내로라 할 만한 것도 없는, 따라서 일정한 수입도 없는 사람들로써, 저는 이러한 끊임없는 생활의 불안을 하루라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당신들처럼 단지 막연한 운명처럼 둘러대기 좋은 것에 기대어 자신의 불안과 공포와 당연히 자신이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잠시라도

얼버무리거나, 당신의 일종의 교육 무능론(이 생각에는 다소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생활과 동물생활의 구별을 무시한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에 의해 부모가 된 사람이 아이의 교육에 대해 당연히 지녀야 할 커다란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저는 당신이 그토록 생각이 없으셨던 이유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만큼 동정이 없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를 기만하는, 이른바 여성적이고 연약하고 가련한 일종의 체념인 듯이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이토』 다이쇼[大正] 4년(1915) 6월호 77페이지 참조) 그러나 역시 저는 빈곤에 의한 불안 이외에도, 아니 그 이상의 불안으로서 개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발전 향상시키거나 자기 자신의 교양을 가로막아 버리는 일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교사나 신문기자, 의사 같은 직업적인 또는 사회적인 공적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방면에서 지금 반드시 저축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지요.

다음으로 당신은 부모가 되는 자격으로서 “진실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 한, 또는 결함을 지닌 사람이나 무능력자, 백치, 미치광이처럼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보통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생리적으로도 충분한 발육을 이룬 사람이라면, 우선 틀림없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리적 생활 이외에 심리적 생활을 지닌 인간, 특히 복잡한 심리생활 이외에 어떤 사회관계와 경제사정 속에서 살아가는 근대의 부인으로서, 단지 이러한 요건의 자격을 자신이 구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계시다니,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부인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나 작은 이기심 또는 빈곤 때문에 즉 이른바 불의의 관계가 빚은 결과인 경우

세상에 대해 면목이 없거나 수치심을 느껴 낙태를 하는 것과는 달리, 당신이 제시하신 부모 될 자격으로 보면 결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될 자격이 없다는 것과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여 제가 앞에서 꼽았던 것처럼 하나의 자기 안에서 이질적이어서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면의 생활 사이의 투쟁의 결과, 어떤 사려 깊음과 침착함을 가지고 조용히 낙태를 결행하는 것이 현대 내지 장래의 부인 가운데 제법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해방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구미(歐美)의 부인 가운데 그것이 올바른지 옳바르지 않진, 또 부인 자신에게 행복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자기의 예술생활을 위해서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사업을 위해서—그것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신생활을 고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문명에도 무언가 공헌을 하기 위해서라는 신념 아래—피임을 하거나 낙태를 하는 사람이 이미 이제까지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원인이나 이유에서 행해진 낙태를 단지 생명을 모멸하는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조야한’ 이유를 들어서 일반적이고 절대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악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히려 오늘날의 올바른 문명은 더욱 더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명을 자연 그대로 방치하거나 단지 그것의 존속이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써는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수를 줄여서라도 그 질을 개량하여 생명 그 자체의 진화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당신의 태아부정설 혹은 죄악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임시방편의 의견으로서 어떤 가치도 느낄 수 없는 저이지만, 당신이 사쓰키 씨의 태아긍정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서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강한 감정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라든가 생명을 모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반쯤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모성에 대한 당신의 열렬한

감정 그 자체가 드러난 것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밖에도 당신 자신이 아직 반성하고 있지 못한 인습적이고 일반적인 감정도 섞여 있다고 봅니다만—당신은 이미 어머니의 애정을 충분히 경험한 부인이고, 사쓰키 씨는 아직 어머니가 되어본 경험이 없는 부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그로부터 두 분의 의견 충돌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오히려 어떤 지대한 흥미와 의미를 느끼는 바입니다.

노에 씨, 저는 마음속에 낙태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이 느끼셨던 ‘양심의 아픔’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것이 일본의 법률로 볼 때 범죄행위(그러나 낙태라는 것을 무조건 범죄로 몰아붙이기 전에 국가는 어머니와 아이를 보호하는 법률 또한 동시에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육아원이나 양육원 같은 설비를 사회적 차원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공평하지 못한 일이겠지요)로 치부되는 일이나, 몸을 상하게 할 위험이 따른다는 점에 대한 다소의 불안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일은 역시 지금 아이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및 미래의 생활 전체를 위해 과연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일일까, 나 자신은 현재의 불안이나 공포, 또는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전체와 미래에 걸친 충분한 고려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훗날 후회할 일은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지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불신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되풀이하여 생각하면서 그냥 며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점점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나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왔던 아이에 대한 욕망이나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실은 자신의 사랑 속에 숨어 있었을 뿐, 단지 다른 욕망이 크고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가려져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니 두 사람의 사랑을 동경하는 그 자체 속에 이미 애초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것이고, 단지

자신이 그것을 분명히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임을. 저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욕구나 의지를 지워버린 채, 아이를 낳고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일종의 죄악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지대한 모순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고려가 아직 미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절감하는 동시에 다시 한 번 사랑의 생활을 긍정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공동생활에 들어간 지금, 더구나 지금 그 사랑 속에서 살며 그 사랑을 심화시키고 고양하는 데 애쓰고 있는 제 자신이 그 사랑의 창조물이자 해답인 아이만을 어찌하여 부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도저히 모순이며 불철저한 행위이다, 만약 아이를 거부한다고 하면 사랑의 생활 전체를 먼저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럼 좋다, 나는 여성으로서 다른 방면의 생활 때문에 자신의 영혼 전부를 아이를 돌보거나 교육하는 데 쏟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과연 자신에게 괴로운 일이고 아이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해도, 그래도 역시 자각이 없고 무지하고 열등한 여자들에 의해서 사랑이 없는 결합 속에서 태어나 무책임한 손으로 길러지는 많은 일본의 아이들에 비하면 분명 나은 일이며 행복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긴 제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낙태 같은 생각이 아주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한없는 책임감과 더불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도, 저는 일종의 탐욕과 알 수 없는 희망과 기대와 환희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두 사람의 사랑의 결합은 한층 더 깊이와 재미와 확실함을 더해 가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노에 씨, 제가 엘렌 케이의 *The Renaissance of Motherhood*(『모성의 부흥』)를 읽은 것은 마침 그 즈음부터 그 다음에 걸친 때였습니다. 때가 때였던 만큼 저는 여러가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지면의 편

지 속에서 그 사상을 소개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만두겠어요. 단지 저는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른 그 책 속에 인용된 로버트 브라우닝의 구절을 이곳에 적어놓는 것만으로 만족하지요.

Womanliness means only motherhood ; all love begins and ends there.

하지만 노에 씨, 이것으로 제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투쟁이 해결될 리는 결코 없었고, 더더구나 잊었다거나 얼버무렸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의 생활에서 얼마나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더후드의 존엄성을 알면 알수록, 따라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교육을 단지 사회나 국가, 또 타인의 손에 맡기고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투쟁은 참담함을 더할 뿐이었어요. 당신은 이번에 낳은 아이를 정말로 고향에 두고 오실 생각이십니까. 벌써 그런 결심을 하신 것입니까. 저는 제 손으로 키울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비록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앞으로 제 생활은 분열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제 영혼과 제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정력을 자신의 교양과 일과 생활을 위한 직업과 애인과 아이와 가정에 어떻게든 쪼개서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테니까요. 그리하여 제가 결여해서는 안될 제일요건인 정신집중 능력이 더욱 흐트러지고 약해지겠지요.

Ms. 길만 일파의 부인론자는 부인이 오늘날의 가정생활의 잡무에서 벗어나서 사회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래서 육아, 교육, 요리 등을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 손에 맡기지 않는다면, 부인의 생활에는 참된 자유도 해방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엘렌 케이는 거기에 반대하여 이른바 해방되어야 할 부인을 또 한 번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되는 것 속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통일과 조화가 있는 부인의 참생활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이른바 ‘대-연애’야말로 인간생활의 근저에 깔려 있는 상이하고 모순된 각종 힘들을 대립시키는 이원론을 탈피하여 조화·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야 어찌 되었든 저는 지금 제 자신의 생활 속에 있는 여러 방면이나 부분을 얼마나 선택하고 통일하며 조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물음, 이것이 제 앞에 놓인, 아니 제 자신의 생활 속에 포함된 중대하고도 곤란하면서도 참으로 의의가 있고 내용 있는 구체적인 부인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생활을 가지고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구나 이것은 결코 제 일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본의 대다수 부인을 덮쳐 올 공통의 문제라는 것을 믿습니다.